

12월 2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R공포 재반격’ 뉴욕 폭락 [다우: 8,149.09pt (-7.70%)]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첫 거래일인 1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폭락세로 마쳤음. 주요 지수는 일제히 7~8%의 깊은 낙폭을 보였음. 경기 후퇴(recession) 우려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했음.
"美 경기후퇴 작년 12월부터 시작"-NBER	미국의 경기는 지난해 12월 이미 후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음. NBER(미국 경제연구소)은 미국의 경기가 73개월간 지속된 경기 확장 국면을 멈추고 지난해 12월 후퇴 국면에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음. NBER은 지난달 28일 회의를 통해 올해 경제활동 위축이 경기후퇴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음.
11월 제조업 경기 '26년 최악'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26년래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11월 제조업지수가 전월의 38.9에서 36.2로 떨어졌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 1982년 이후 최저치. 이 지수는 50을 넘어서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함.
버냉키 "장기국채 매입도 고려"...추가 금리인하 시사	버냉키 연준 의장은 시중의 실세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물 국채의 매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음. 버냉키 의장은 이날 텍사스 오스틴에서 행한 연설에서 "신용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경제는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현행 1%인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는 가능하다"고 언급,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암시했음.
유가, 9%↓ 50弗 하회 [WTI: \$49.28 (-\$5.15)]	국제 유가가 9% 이상 폭락하며 50달러선 아래로 밀려났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이 미뤄진데다 제조업 지표 악화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유가 폭락의 배경이 되었음. OPEC은 지난 주말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의를 갖고 유가 추이를 좀더 지켜본 뒤 오는 17일 알제리 오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추가 감산을 결정하기로 했음.
유럽위원회, 佛 은행 금융지원안 금주중 승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이번 주중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105억유로(133억달러) 규모의 은행 금융지원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 프랑스의 은행지원안은 의결권 요구나 주가의 희석효과 없이 정부가 은행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에 따라 자금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주가상승과 지급능력비율(Solvency Ratios) 상승, 신용도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프랑스 중앙은행은 전망.

제목	주요 내용
日 BOJ, 2일 긴급 이사회..기업 지원책 논의	일본은행(BOJ)이 2일 오후 1시(현지시간) 긴급 이사회를 갖고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이와 관련, 2일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
UN "내년 세계경제 1% 성장"	유엔(UN)은 내년 세계 경제가 1%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유엔의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2009`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1%로 올해 2.5%에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中企 살려라...신·기보 출연금 2천억 증액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내년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당초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액됨.
車내수 한달만에 30% 감소 3년9개월래 최저	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가 7만 4,000여대로, 전달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 2005년 2월이후 3년 9개월래 최저수준임. 소비심리의 급랭과
채안펀드 출연금 확정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에 대한 은행들의 출연금이 확정되었음. 2조원을 출자하기로 한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국민은행이 1조원 규모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이 각각 7,000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떠안게 되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